

신행 · 포교 소식

### 90개 군부대에 3만개 자비선물 지원

군종교구, 4월 30일 선물포장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군장병 자비의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군종교구는 불서(매일매일 만나는 부처님), 합장주, 과자류 3종 등을 담은 위문품 3만개를 자비의 선물로 마련했다.

자비의 선물은 육해공군 신병교육부대 36곳과 최전방 격오지 군법당, 백령도와 연평도 등 최북단 도서지역, 해안 초소 54곳 등 총 90개의 군부대에 부처님의 자비심을 담아 전하게 된다.

예산이 넉넉지 않은 군종교구는 오는 5월말까지 자비의 선물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게 된다. 군포교 지원단체 회원 40여 명은 4월 30일 자비의 선물 포장 작업을 전개했다. 자비의 선물 곁면에는 '부족 부처님오신



날-부처님 품안 따뜻한 병영생활-군종교구'가 새겨져 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열악한 환경에서 군복무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군복자들에게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심을 전하는 뜻깊은 불사인 만큼 보다 많은 불자들이 자비의 선물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파라미타, 청소년 사경공모전 진행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6월 12일까지 '제18회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청소년들이 사경 체험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제시된 사경시안에 사경한 원본 △제시된 경구를 이용한 자유 표현 작품 △제시된 경구를 1일에 1회씩 10일 이상 사경한 노트 등 1가지방법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정신성과 예술성, 창작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공모전은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불총위원장상, 최우수상에 동국대총장상, 우수상에 조계종교교원장상과 파라미타총재상, 불교신문사장상 등이 수여된다.

전국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공모전은 파라미타 홈페이지(www.paramita.or.kr)에서 사경시안을 내려받아 작품을 완성한 뒤 오는 6월 12일까지 파라미타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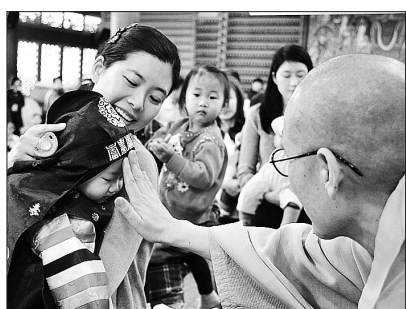
### 봉은사 제4회 108유아수계법회 개최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제4회 108유아수계법회'를 5월 9일 봉은사 법당 루에서 개최한다.

108유아수계법회는 '부처님께서 미래에 부처가 될 사람의 이마를 어루만졌다'는 본생담의 경전내용에 근거해 '마정수기'와 계를 받는 의식이 진행된다.

봉은사 측은 "부모의 신앙을 자녀의 마음에 담고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과 인연을 맺음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도록 기원하는 자리"라며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봉은사는 4월 28일 '힐링멘토와 함께한 행복여행 콘서트'를 회향했다. 마지막 콘서트에서는 불교 명상심



리학의 대가인 서광 스님이 나서 현대인의 심리 치유를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힐링콘서트는 혜민스님과 원민스님, 정목스님, 서광스님이 멘토로 나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 “불교 가르침 실천하니 사업도 탄탄대로”

## 불교계 기업형 마인드케어프로그램 '각광'

“불교가르침 경영에 접목하니 사업이 더욱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동국대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경영자들은 불교적 가르침에 따른 기업경영이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장래용품 전문업체인 에프엔에스를 경영하는 남승현 대표(27)는 “불교에서는 하심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경영에 도움이 됐다”며 “생산고객의 입장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노력했더니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다.

최근 명상 등 불교 수행 방식을 기업경영에 도입하는 CEO들이 늘며 불교계 기업형 마인드케어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고 있다.

먼저 서울 주요대학 중 유일하게 불교분야 기업경영 최고위과정을 운영하는 동국대는 매학기 40여 명의 기업가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 찾고 있다.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이하 불교최고위과정)은 2004년 문을 연 뒤 지금까지 20기 663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처음에는 이름난 사찰의 승려들이 주로 이곳을 다녔지만 점차 이들이 알려지면서 불교 신앙을 가진 기업인·정치인·법조인 등이 찾기 시작했다.

개강 초기에는 불교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강좌로 시작해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불교와 사회생활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미

래지향의 상생 경영과 불교정신 △불교의 교유철학과 미래교육 △고령화시대의 불교사회복지 △현대 산업디자인과 불교예술 △불교 마케팅의 과제와 전망 등의 강좌가 인기가 있다.

정승석 불교대학원장은 “불교 최고위과정에 수료한 기업경영자들이 기업·사회활동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열기에 덩달아 바빠진 이가 있다.

### 동국대 불교경영과정, 기업가 인기

### 기업형 자비명상 매년 3000명 연수

### 최근 소셜 마인드케어 서비스도 선풍

기업체를 찾아 자비명상을 전하고 있는 마가 스님이다. 스님은 2002년부터 직장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곡사에서 진행한 4년 동안에는 매년 300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삼성·우미건설·신한은행 등 기업연수도 진행했다. 최근 1월에는 한국문화연수원과 기업경영 케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약도 맺었다. 마가 스님의 기업체 대상 자비명상의 특징은 감성경영을 위한 대화훈련, 임직원들이 서로의 말을 효과적으로 공감하고 칭찬하는 방법을 익



'대추씨'와 총명상 힐링운동회 모습.총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다.

히도록 한다. 에니어그램, 코칭 등도 함께 진행한다.

마가 스님은 “조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대화를 통한 소통”이라며 “불교의 가르침에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이 담겨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 실습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최근 불교계에는 소셜벤처기업도 탄생했다. 2012년 10월 설립된 '대추씨' (대표 권민희)는 에너지총전원워크숍인 '어른이놀이터'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셜벤처기업을 거쳐간 인원은 3년간 약 3000여 명에 달한다. 그동안 기업을 찾아다니며 진행한 워크숍 회수만 280여 회. 기업체 면면을 살펴봐도 벅스, KT&G복지재단, 한 살림, 아이디병원 등 다양하다. '대추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은 '마음피트니스'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킷으로 최대 6명까지 사무공간에서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5월에는 페이스북 '마음피트니스' (https://www.facebook.com/OMindfitness)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마음 측정 및 상담도 진행한다.

툴킷을 판매한 수익금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팀과 함께 사회복지사를 위한 '소셜예방프로그램' 보급으로도 환원된다.

권민희 대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소통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힐링”이라며 “이러한 힐링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기업 발전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nbul.com

## 소외계층 위한 '행복바라미' 대장정 들어가

5월 1일 개막행사, 내소사 패블 광화문에 걸어 스포츠스타 대거 참여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홍) 산하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은 5월 1일 '2015 행복바라미 문화 대축전'을 열며 내소사 패블을 광화문 광장에 걸었다.

행사는 행복바라미 홍보대사 이용대, 최현주 등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스타들이 참여했다. 개막장소인 광화문 광장은 전통등 및 보물 제1268호인 내소사 패블, 전통한옥 등으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우리 전통문화를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구성됐다. 광화문광장에선 남사당패놀이, 가야금 연주, 승무·법고·바라춤 공연을 펼치고 널뛰기, 투호놀이, 버나 돌리기 등 체험활동이 진행됐다.

전통문화축제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 10곳에서 연다. 2



4월 30일 행복바라미 축전을 위해 광화문에 걸린 미항사 패블

일 인천·수원, 3일 광주·전주(3일), 10일 부산·울산 등에서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축제를 진행한다.

날마다 좋은날은 전국 주요도시 10곳 등 전국 140곳에 설치된 모금함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금을 받을 계획이다.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모금장소가 증가했다.

각 지역에서 모인 기부금을 따로 합산하지 않는다. 그 지역 사찰 신도회가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카드 단말기를 활용한 기부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특징이다. 이 모금 캠페인을 통해 2013년 209명, 지난해 260명의 이움을 도왔다. 올해는 5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복바라미 카드결제에 동참한 자승스님

이기홍 이사장은 “행복바라미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대축전과 날로 각박해져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상생과 사회적 공동 선(善) 구현을 위한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 제69기 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재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요법 : 도체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왔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약사요...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KBS 국문 대한민국 MBC 생방송 오늘아침  
 SBS 미워도 다시 한번 JTBC 부모하기  
 채널A 그 여자 그 남자 TV조선 가족두끼미운  
 MBN 한정르포 특종세상 Y7N 사이언스 과학하기  
 tvN 심령솔루션 엑스시트 외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tvN 심령솔루션  
 엑스시트 출연 화제!